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2026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국어 영역 •

※ 본 전국연합학력평가는 17개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시행되며, 문제지는 EBSi에서만 제공됩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는 금지됩니다.

국어 정답

1	⑤	2	④	3	②	4	⑤	5	①
6	①	7	③	8	③	9	②	10	④
11	②	12	③	13	②	14	⑤	15	①
16	④	17	①	18	①	19	③	20	⑤
21	⑤	22	④	23	⑤	24	③	25	③
26	⑤	27	①	28	④	29	②	30	③
31	②	32	④	33	①	34	②		

해 설

[1～3] (독서 이론) 김규선, 「읽기 학습 지도의 효율화를 위한 도식 조직자의 활용 연구」

메모하기는 학습 독서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전략이다. 독자는 메모하기를 통해 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능동적이고 비판적인 독서 태도를 기를 수 있다. 학습 독서에 활용될 수 있는 메모하기의 구체적인 방법에는 전체 내용을 아울러 개괄하기, 핵심어로 요약하기, 기호 및 약어 사용하기 등이 있으며, 글에 사용된 텍스트 구조에 따라 주요 내용을 시각화하여 메모할 때는 도해 조직자를 활용할 수 있다.

1.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1문단에 따르면 독자가 글을 읽으며 작성한 메모는 이후에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로써 복습에 활용될 수 있다. 3문단에 따르면 텍스트 구조에 따라 주요 내용을 시각화하여 메모할 때는 도해 조직자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작성한 메모를 복습에 활용하기 위해서 텍스트가 특정한 도해 조직자로 시각화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 따르면 메모하기는 지식 습득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학습 독서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전략이다. ④ 3문단에 따르면 학습 독서에서 독자가 주로 접하게 되는 글은 설명적 텍스트이며, 여기에는 원인과 결과, 열거 등의 텍스트 구조가 사용된다.

2. [출제의도] 글의 정보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는 비교 및 대조의 텍스트 구조와 시간 순서의 텍스트 구조에 활용할 수 있는 도해 조직자의 형태를 각각 제시한 것으로, 3문단에 사용된 텍스트 구조를 두 개의 도해 조직자를 함께 활용하여 시각화한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는 '학습 독서 시 메모하기의 효과'로 1문단의 전체 내용을 아울러 개괄한 것이다. ③ ⓒ는 2문단에 제시된, 메모하기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정보와 메모하기가 효과적인 학습 자료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정보 간의 관계를 화살표로 드러낸 것이다. ⑤ ⓔ는 3문단에 제시된 도해 조직자에 대한 정보를 학생의 배경지식과 연결 지어 이해한 내용을 드러낸 것이다.

3. [출제의도] 글의 핵심 정보를 이해한다.

1문단에 따르면 글을 읽으며 갖게 되는 의문이나 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메모하는 것은 능동적이고 비판적인 독서 태도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되며, <보기>에 따르면 글을 읽으며 의심나는 점을 기록한 다음 그에 대한 변론을 붙이는 것은 지혜의 개발과 마음의 안착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윗글과 <보기> 모두 글을 읽을 때 자신의 의문이나 견해를 기록하는 비판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윗글과 <보기> 모두 글을 읽을 때 새로운 정보만을 기록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 ⑤ 윗글과 <보기> 모두 글을 읽을 때 독자의 배경지식과 일치하는 내용을 선별하여 기록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

[4～9] (사회 주제 통합)

(가) 천주현, 『수사와 변호』

국가는 형사 절차에서 체포나 구속과 같은 강제 처분을 행사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 강제 처분이 남용되어 인권 침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강제 처분은 사전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받는 원칙인 영장주의에 따라 행사된다. 체포는 경우에 따라 영장 없이도 행사가 가능하지만, 구속은 반드시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며, 구속 영장 발부 이전에는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진다.

(나) 이재상 외, 『형사소송법』

적부 심사는 체포되거나 구속된 개인이 그 강제 처분이 법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한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강제 처분이 행사된 이후 그 효력이 유지될 수 있는지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권한을 제도적으로 견제한다. 적부 심사는 본인뿐 아니라 다양한 주체가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강제 처분의 유지 여부를 판단한다.

4. [출제의도] 글의 정보를 비교하여 이해한다.

(가)는 강제 처분을 행사하기 위한 조건인 영장주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나)는 체포나 구속이 행사된 이후 강제 처분의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인 적부 심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는 강제 처분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나)는 강제 처분이 행사된 이후의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효과나 한계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② (가)는 강제 처분의 원칙인 영장주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이론적 배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다. (나)는 강제 처분의 실제 사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③ (가)는 영장 발부를 통해 강제 처분이 정당화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지만, (나)는 강제 처분의 행사 주체가 달라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 강제 처분의 행사 주체는 모두 수사 기관이다. ④ (가)에 따르면 강제 처분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나)는 강제 처분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5.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영장은 법원이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을 사전에 심사했다는 표지이다. 적부 심사는 법원이 강제 처분의 효력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 행사된 강제 처분에 정당성이 부여된다.

[오답풀이] ② 강제 처분에 대한 판단은 수사 기관이 아닌 법원에 청구한다. ③ 체포와 구속 모두 강제력을 통제하는 기관은 법원으로 동일하다. ④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에도 체포 적부 심사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⑤ 적부 심사에서 영장 발부가 잘못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제 처분이 중지될 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6. [출제의도] 글의 핵심 정보를 이해한다.

영장 실질 심사에서 피의자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한 판단을 구속 적부 심사에서 적법하다고 인정하였더라도 피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위험이 사라지면 법원이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수 있으므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오답풀이] ② 구속 적부 심사에서의 법관의 판단은 이미 행사된 구속에 대한 것이다. 영장 실질 심사는 구속 이전에 실시되는 것이므로 개인의 신체적 자유에 대한 제한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③ 영장 실질 심사는 반드시 실시되므로 생략되지 않는다. 구속 적부 심사는 청구에 의해 진행되므로 청구가 없는 경우 시행되지 않는다. ④ 영장 실질 심사는 청구 없이 반드시 실시되므로 청구권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구속 적부 심사는 피의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청구권자가 폭넓게 인정된다. ⑤ 영장 실질 심사와 구속 적부 심사 모두 법관이 피의자를 심문한다.

7. [출제의도] 글의 정보를 이용해 추론한다.

긴급 체포나 현행범 체포는 체포 영장 없이 강제력 행사가 가능하므로 사전에 강제 처분에 대한 법원의 적법성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때 체포된 피의자는 체포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강제 처분에 대한 법원의 적법성 판단은 강제 처분 행사 이후인 체포 적부 심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오답풀이] ① 긴급 체포나 현행범 체포는 영장 없이도 가능하므로 행사 전에 적법성을 검증받지 않는다. ② 긴급 체포나 현행범 체포는 영장 없이 가능하므로 사전 판단이 없고 따라서 판단 시점에 따라 행사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 ④ 체포는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국가 권력 행사이므로 영장 발부, 적부 심사라는 다수의 절차를 시행하지만, 긴급 체포와 현행범 체포는 영장 발부 절차가 없다. ⑤ 체포를 위해서 법원의 객관적 판단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영장 없이 행해지는 체포에 대한 판단이 강제 처분의 행사 이후로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8. [출제의도] 글의 정보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법원의 구속 영장은 갑을 구속해도 된다고 허가하는 것이므로 갑에게 이미 행해진 강제 처분인 체포의 정당성을 심사하는 절차가 아니다.

[오답풀이] ① 체포 이후 갑에게는 체포 적부 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주어진다. ② 영장은 국가의 권한 행사를 합법적으로 승인한다는 판단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허가 문서이므로 갑의 구속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④ 갑의 변호인이 청구한 구속 적부 심사에서 법원이 갑의 석방을 명하면 갑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다. ⑤ 구속 이후 상황에서 피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위험이 사라졌다면 법원은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수 있으므로, 법원이 갑의 석방을 명한 것은 갑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사라졌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9. [출제의도] 구절의 문맥적 의미를 이해한다.

ⓑ의 의미는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의미이다. 개인의 기본권 제한을 보장한다는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 ⓐ는 수사 기관의 권한이 통제 없이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는 기본권 제한의 근거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⑤ ⓔ는 법원에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0～13] (과학) Stephen M. Stahl, 『스탈의 필수 정신약리학』

도파민은 운동 조절, 보상 및 동기 부여 등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 뇌의 도파민성 뉴런에서 합성된다. 합성된 도파민은 시냅스 틈으로 분비되어 시냅스 후 뉴런의 도파민 수용체에 결합함으로써 신호를 전달한다. 도파민 수용체는 흥분성 수용체인 D1 계열과 억제성 수용체인 D2 계열로 나뉘며, 도파민성 뉴런에 D2 계열 수용체가 있으면 도파민성 뉴런 스스로 도

파민 분비를 조절할 수 있다. 분비된 도파민 중 일부는 도파민 수용체에 결합하지 않고 DAT에 의해 재흡수되거나 뉴런 밖에서 분해된다. 수의적 운동은 기저핵에서 선조체와 내측 창백핵을 연결하는 직접 및 간접 경로가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하며 조절된다.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은 선조체로 연결되어 직접 및 간접 경로를 통해 수의적 운동의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데,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에서 분비된 도파민은 직접 경로를 활성화하고 간접 경로는 억제하여 운동을 촉진하게 된다.

10.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2문단에 따르면 시냅스 틈으로 분비된 도파민 중 일부는 도파민 수용체에 결합하지 않고 도파민성 뉴런으로 재흡수되기도 한다. 따라서 도파민성 뉴런에서 분비된 도파민 중 도파민 수용체에 결합하지 않은 것이 모두 뉴런 밖에서 분해되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② 1문단에 따르면 도파민성 뉴런에서 티로신이 레보도파로, 레보도파가 도파민으로 합성되는 과정에 효소의 작용이 필요하다. ③ 3, 4문단에 따르면 뇌에 존재하는 가바, 글루타메이트, 도파민 등의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을 통해 수의적 운동이 조절될 수 있다. ⑤ 2문단에 따르면 도파민 수용체는 뉴런 내 신호 전달의 활성을 유도하는 흥분성 수용체인 D1 계열과 뉴런 내 신호 전달의 활성을 억제하는 억제성 수용체인 D2 계열로 나뉘므로, 어떤 계열의 수용체에 도파민이 결합하느냐에 따라 뉴런 내 신호 전달의 활성 여부가 달라진다.

11. [출제의도] 글의 정보를 이용해 추론한다.

2문단에 따르면 시냅스 틈으로 분비된 도파민이 도파민성 뉴런의 D2 계열 수용체에 결합하면 도파민의 분비가 중단되며, 시냅스 틈으로 분비된 도파민 중 일부는 도파민성 뉴런에 위치한 DAT에 의해 도파민성 뉴런으로 재흡수된다. 따라서 시냅스 틈으로 분비된 도파민의 양은 도파민성 뉴런에 의해 일정 수준으로 조절될 수 있다. 그러나 DAT나 D2 계열 수용체가 없는 도파민성 뉴런도 있으므로 도파민의 양이 조절되는 양상은 도파민성 뉴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2문단에 따르면 도파민성 뉴런으로 재흡수된 도파민은 뉴런 안에서 도파민 분해 효소에 의해 분해된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 도파민의 양이 조절되는 양상이 도파민성 뉴런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설명할 수는 없다. ③ 2문단에 따르면 D1 계열 수용체와 달리 D2 계열 수용체는 시냅스 후 뉴런뿐만 아니라 도파민성 뉴런에도 위치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 도파민의 양이 조절되는 양상이 도파민성 뉴런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설명할 수는 없다. ④ 2문단에 따르면 도파민성 뉴런으로 재흡수된 도파민 중 일부는 시냅스 소포에 저장되었다가 재사용된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 도파민의 양이 조절되는 양상이 도파민성 뉴런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설명할 수는 없다. ⑤ 2문단에 따르면 DAT는 시냅스 틈으로 분비된 도파민의 재흡수에 관여하므로 도파민성 뉴런의 DAT 존재 여부에 따라 도파민성 뉴런에서 합성되는 도파민의 양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12. [출제의도] 글의 정보를 비교하여 이해한다.

4문단에 따르면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에서 분비된 도파민은 직접 경로를 활성화하고 간접 경로는 억제하므로, ㉠과 ㉡은 모두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면 내측 창백핵 뉴런의 활성이 억제된다.

[오답풀이] ① 3, 4문단에 따르면 ㉠과 ㉡은 모두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면 대뇌 피질의 운동 영역으로 글루타메이트가 분비된다. ② 3문단에 따르면 선조체 뉴런이 활성화되면 ㉠은 시상으로 가바가 분비되지 않으며, ㉡은 시상으로 가바가 분비된다. ④ 3문단에 따르면 ㉡은 선조체 뉴런이 활성화되면 내측 창백핵 뉴런이 활성화되어 이후 직접 경로와는 상반된 작용이 일어난다. ⑤ 4문단에 따르면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에서 분비된 도파민이 ㉠을 이루는 선조체 뉴런 내 신호 전달의 활성을 유도하고, ㉡을 이루는 선조체 뉴런 내 신호 전달의 활성을 억제하게 된다.

13. [출제의도] 글의 정보를 구체적 상황에 적용한다.

1문단에 따르면 도파민은 뇌에 존재하는 도파민성 뉴런에서 합성된다. <보기>에 따르면 (나)는 레보도파를 도파민으로 합성하는 효소의 작용을 말초 조직에서 억제하므로 뇌의 흑질에서 합성된 도파민의 작용 기간을 연장하는 기능을 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 따르면 약물로 섭취한 도파민은 혈액-뇌 장벽을 통과할 수 없다. <보기>에 따르면 (가)는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으로 흡수되어 도파민 합성을 증가시키므로, (가)를 약물로 투여하면 혈액-뇌 장벽을 통과하여 뇌로 진입할 수 있다. ③ <보기>에 따르면 (다)는 선조체 뉴런의 도파민 수용체에 결합하여 도파민이 결합된 것처럼 기능하게 하므로,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에서 도파민이 합성되는 과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④ <보기>에 따르면 (가)의 상당량은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으로 흡수되기 전에 말초 조직에서 도파민으로 합성되므로, 레보도파를 도파민으로 합성하는 효소의 작용을 말초 조직에서 억제하는 (나)를 (가)와 함께 투여하면 뇌로 전달되는 레보도파의 양을 증가시킬 수 있다. ⑤ <보기>에 따르면 도파민성 뉴런이 파괴되는 것의 진행을 막을 수 없으므로, 병이 진행됨에 따라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가)의 양을 늘리거나 (가)와 (다)를 병용할 수 있다.

[14～17] (인문) 호네트와 버틀러의 인정 이론

호네트는 '목적격 나'에 대한 '주격 나'의 반응에 의해 정체성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목적격 나'를 받아들이면 규범을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반발하는 경우에는 대안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인정을 받기 위한 인정 투쟁을 하게 된다. 버틀러는 이를 비판하면서 규범은 수행의 반복을, 정체성은 수행적 반복의 실천을 통해 형성되며 유동성을 지닌다고 하였다. 인정 투쟁은 규범이 사회 구성원에게 부여하는 동일성에 복종하는 형태로 나타나거나, 진리 체제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저항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인정 투쟁을 성공하더라도 필연적으로 또 다른 배제의 잔존을 가져온다.

14. [출제의도] 글의 핵심 정보를 이해한다.

호네트는 인정 투쟁의 결과로 인한 규범의 변화는 대안적 정체성에 대한 인정으로 이어진다고 보았으나 그것이 사회 구성원 전체를 아우르는 것은 아니다. 버틀러 또한 규범은 유동적이어서 계속 변화하지만 인정 투쟁이 성공하더라도 필연적으로 또 다른 배제의 잔존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 따르면 호네트는 개인은 '목적격 나'를 정체성으로 내면화함으로써 규범의 요구를 수용하고 이를 통해 인정을 받게 된다고 하였다. ② 3문단에 따르면 버틀러는 규범이 수행에 선행하여 존재하는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수행의 반복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되거나 약화되고 사라지는 유동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③ 호네트는 규범에 의해 요구되는 정체성인 '목적격 나'를 받아들이는 것을 정체성의 형성이라고 하였으므로 정체성의 형성과 규범의 작동을 일방적으로 보았다고 할 수 있지만, 버틀러는 정체성의 형성과 규범의 작동이 수행적 반복을 통해 쌍방향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④ 버틀러는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의 규범을 유동적인 것으로 보았지만 호네트는 '목적격 나'라는 고정된 기준으로 보았다.

15. [출제의도] 글의 정보를 이용해 추론한다.

버틀러는 진리 체제가 규범에 벗어나는 존재를 상정함으로써 동일성을 확인한다고 하였고, 인정과 배제의 경계를 끊임없이 시험할 때 배제가 최소화되고 상호 인정의 윤리가 작동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 자신의 진리 체제가 작동시키는 규범이 타자를 배제할 수 있으므로 의문을 제기하며 인정과 배제의 경계를 시험함으로써 배제를 최소화해야 한다.

[오답풀이] ② 생존 투쟁으로 인해 규범이 변화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자신의 진리 체제에도 의문을 제기해야 하는 이유는 아니다. ④ 수행적 반복의 실천은 매번 다른 시공간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자신의 진리 체제에 의문을 제기해야 하는 이유는 아니다. ⑤ 규범에 벗어나는 존재를 상정하는 것은 배제를 위한 것이다. 버틀러는 배제의 최소화를 주장하였다.

16.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구체적 상황에 적용한다.

호네트가 말한 규범에 대한 비판적 태도는 대안적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규범에 대한 것이다. 사람들이 백정에 대한 사회적 제약을 당연시한 것은 버틀러가 말한 또 다른 배제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 호네트는 '목적격 나'를 정체성으로 내면화하는 것을 규범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으로 보았으므로 갑이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이를 감내하는 것은 '목적격 나'인 백정에 대한 인식을 정체성으로 내면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버틀러는 개인이 차이를 의식하고 자신이 배제되었음을 느끼는 순간 생존 투쟁으로서의 인정 투쟁이 시작된다고 하였으므로, 아들이 학교 입학 허가를 받지 못한 것을 보며 갑이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 것은 차이를 의식하고 배제를 느낌으로써 인정 투쟁을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호네트는 규범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이며 정체성의 인정을 위해 저항하는 것을 인정 투쟁이라고 하였으므로 갑이 사람들과 연대하여 백정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 것은 대안적 정체성을 규범에 부합하게 하여 인정을 받으려는 인정 투쟁이라고 볼 수 있다. ⑤ 버틀러는 인정 투쟁의 성공이 필연적으로 또 다른 배제의 잔존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형평사의 노력 이후에도 여전히 백정에 대한 사회적 제약을 당연시하는 인식은 인정 투쟁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배제가 잔존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7.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상 의미를 파악한다.

ⓐ는 '어떤 일이 생기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①의 '일어났다'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사건이 생겼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와 동일하다.

[오답풀이] ② '약하거나 희미하던 것이 성하여지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③ '병을 앓다가 낫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④ '위로 솟거나 부풀어 오르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⑤ '소리가 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18～22] (갈래 복합) (가) 이성복, 「서해」 / (나) 김기택, 「어떻게 기억해 냈을까」, / (다) 유경종, 「의원지」

(가) 이성복, 「서해」

이 시는 바다를 제재로 하여, '당신'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가능성의 영역으로 남겨 둠으로써 당신이 있을 곳을 남겨 두겠다는 역설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당신'이 있는 '그곳 바다'는 '여느 바다'와 마찬가지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당신'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공간으로 형상화된다.

(나) 김기택, 「어떻게 기억해 냈을까」

이 시는 고층 건물도 자연의 일부라는 인식을 거쳐 도시의 일터에서 발견한 생명력을 표현하고 있다. 화자는 서류 상자를 나르며 웃는 '그녀'의 모습에서 수

확한 사과를 나르며 웃는 '추수꾼'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때 '그녀'가 있는 공간은 '추수꾼'이 있는 공간의 이미지와 중첩되며 생동감을 전달한다.

(다) 유경종, 「의원지」

글쓴이인 '나'가 마음속에 '의원'이라 이름 붙인 원림에 대한 사유를 펼치고 있는 글이다. 글쓴이는 원림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울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한다.

18.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나)에서는 '사과'를 활용하여 사과를 수확하는 계절의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 (가)와 (다)에서는 특정 계절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④ (가)는 의문형 어미를 활용하고 있으나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나)는 감탄형 어미를 활용하고 있지 않으며, (다)는 감탄형 어미를 활용하여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⑤ (가)는 '그곳', (나)는 '저', '그 많은', (다)는 '그 원림' 등에서 원근을 나타내는 지시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대상에 대한 경외심은 드러나지 않는다.

19.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를 파악한다.

[A]의 '웃음'은 '하늘과 물과 바람'의 생명력을 지닌 '사과'에 대응되며, [B]에서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익어 흘러나온' 것으로 제시된다. '오랜 세월'을 거쳐야 무르익을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된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A]에서 '웃음'과 '발걸음', [B]에서 '웃음'과 '걸음'은 도치법을 통해 주목의 대상으로 제시된다. ② [A]에서 웃으며 걷는 주체인 '그녀'는 '고층 빌딩'이라는 인공물이 '땅', '흙', '풀'이라는 인식을 거쳐 [B]에서 웃으며 걷는 '추수꾼'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④ [A]의 '발걸음'은 '공기', '햇빛', '과즙'으로 연쇄적으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연쇄는 '공기', '햇빛'과 어우러진 [B]의 '걸음'이 '걷지 않아도 저절로 나아가는' 것임을 나타낸다. ⑤ [A]에서는 사과 속에 이미 추수꾼의 웃음이 담겨 있는 것으로 묘사되며, 이 웃음은 스스로 넘치고 무거워져서 떨어지며 저절로 익어 흘러나오는 것으로 표현된다. 이는 추수꾼이 스스로 충만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20. [출제의도] 구절의 의미를 파악한다.

(가)에서 화자는 '당신'이 '그곳 바다'에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유지하기 위해 '그곳 바다'에 가지 않는다. 따라서 ㉠은 사실의 확인을 유보함으로써 기대를 유지하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나)에서 ㉡은 꿈에서 본 사슴을 현실에서도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은 꿈에서의 기대를 현실에서도 유지하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오답풀이] ② ㉠은 기대 실현의 가능성을 부정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기대를 유지하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은 꿈에서 형성된 기대를 현실에서 확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유지하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21.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나)의 '안 보는 척 보았네'라는 진술은 '외로운 추수꾼'에 대한 것이다. 이는 공간의 물리적 제약을 넘어 현실 공간인 '고층 빌딩 사무실'에서 상상의 공간을 창출해야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위의 진술이 비가시적인 세계를 현실에 소환하여 공간의 한계를 확인하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② (가)에서 '여느 바다'에 대한 화자의 경험은 '그곳 바다'와 다르지 않다는 속성을 유추하게 하는 동시에 두 공간을 '당신'이 없는 공간과 '당신'이 있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의식하게 하는 단초로 작용하고 있다. ③ (나)에서 그녀가 '서류 뭉치를 나르'는 행위는 '방금 딴 사과가 가득한 상자를 들고' 움직이는 행위와 동일시되고 있다. 이는 현실과 상상의 공간이 동시적으로 구현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④ (가)에서 '가 보지 않은 한쪽 바다'는 '마음속에서 파도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다)의 '의원'은 '없다 생각하고' 봄으로써 '없었던 적이 없'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는 공간의 물리적 구속에 얽매이지 않는 비가시적 세계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22. [출제의도] 인물에 대해 이해한다.

글쓴이인 '나'는 '중장통'과 '유린'의 사례를 들어 글이나 그림이 실제로 존재하는 원림을 대신하는 구실을 하지 않아도 진정으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

[오답풀이] ① '나'는 경영하느라 애쓸 바에야 차라리 붓 끝에서 완성하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실제 원림을 가꾸는 것보다 글로 원림을 표현하고 즐기는 것이 더 낫다고 보는 것이다. ② '힐난하는 이'는 무릇 일에는 이름이 있고 실질이 있다고 이야기하며 '나'에게 이름을 앞세우고 실질을 뒤로 돌리는 사람이 아니냐고 묻고 있다. 이는 원림을 실제로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소유한 것처럼 여기는 글쓴이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③ '나'는 원림이 있다 생각하고 보면 증거에 얽매이고 사물에 구속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실재하는 형상에 얽매이게 되어 오히려 원림을 즐기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⑤ '나'는 '이름과 실재를 그래 어느 겨를에 논하겠는가'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원림의 존재를 둘러싼 논의를 원림을 즐기는 것보다 부차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다.

[23～26] (고전 시가) 안도환, 「만언사」

안도환이 귀양을 가서 겪은 괴로움을 노래한 조선 후기 장편 유배 가사로, 험난한 유배 생활의 양상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제시된 부분에서는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 및 유배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소망이 드러나 있다.

23.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사립문에 개 짖으니 나를 놓아줄 공문인가. / 반겨 나가 물어보니 황아 파는 장수로다.', '바다에 배가 오니 석방 문서 가진 관선인가. / 일어서서 바라보니 고기 잡는 어선이라.'와 같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제시하는 형식을 반복하여 상황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① 자연의 영원성과 인간사의 무상함을 대조하고 있지 않다. ② 어지러운 세태에 거리를 두어 관조하는 태도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③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주변 경치를 관찰하고 있지 않다. ④ 탈속적 이상향을 향한 동경은 드러나 있지 않다.

24.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에 담긴 작가의 의도를 파악한다.

㉢에 따르면 '종이 노'를 만들 줄 알아야 '짚 새끼'도 꼴 수 있으므로, '종이 노'를 몰라서 못 만드는 것과 '짚 새끼'를 못 꼬는 것은 상반된 행위라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에서는 '거동 보소'라는 명령형 표현을 사용하여 이어지는 내용에 대한 집중을 유도하고 있다. ② ㉡에서는 유사한 문장 구조를 대응시켜 '주인'의 언행에 대한 반감을 강조하고 있다. ④ ㉣에서는 '일각이 삼 년처럼 더디 가니'라는 과장된 표현을 통해 고생하는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⑤ ㉤에서는 몸의 증세를 열거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신체적 반응을 구체화하고 있다.

25. [출제의도] 소재의 의미를 파악한다.

ⓐ는 '눈서리' 치는 상황의 개선에 대한 기대를 투영하는데, 이 기대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아니 올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는 '오장의 불'이 난 상황의 개선에 대한 기대를 투영하는데, 이 기대가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는 인식을 '알고도 못 얻으니'에서 확인할 수 있다.

26.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화자는 '활을 맞고 놀란 새'가 '과녁'에 앉으려 하지 않는 것에 빗대어, '임으로 든 병'과 달리 '공명으로 든 병'을 '공명하여 고치'는 것은 귀양살이로 인한 '설움'을 완화하는 방편이 아니라 본다.

[오답풀이] ① '빌어먹기'에 이어 '신 삼기'와 '노 꼬기'를 시도하는 화자의 모습에서, 귀양살이의 열악함에 적응하려는 반복적 노력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② '노를 배워 꼬'는 화자의 시선에 들어오는 '가지런히' 나는 '오리', '한 빛'을 이루는 '물과 하늘'은 노 꼬기에 근심을 부치는 마음 상태를 드러내는 자연 풍광이라 할 수 있다. ③ 귀양살이에서 벗어나 '임'과 재회하고 싶다는 화자의 소망은 '하루 열두 시를 몇 번이나 기다렸'다는 진술에서 그 간절함이 확인된다고 볼 수 있다. ④ '공문'과 '장수'의 대응과, '석방 문서 가진 관선'과 '고기 잡는 어선'의 대응은 귀양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과 그러지 못한다는 현실의 괴리를 드러내며, 귀양살이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소망의 실현이 어려울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27～30] (현대 소설) 이문열, 「들소」

1979년에 발표된 이 작품은 원시 수렵 사회의 동굴 벽화에서 소재를 취한 중편 소설이다. 수렵 행위가 중요시되는 사회에서 들소 사냥을 잘하는 것은 구성원의 서열 결정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그'도 들소 사냥에 도전하여, 들소를 포획하려고 하지만 거듭 실패한다. 섬세한 감수성과 예술적인 재능을 가진 '그'는 동굴로 들어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들소를 잡으려 하고 필생의 기력을 쏟아 들소 그림을 실물과 흡사하게 완성한다.

27. [출제의도] 소재의 의미를 파악한다.

태어날 당시의 명명과 달리, '힘과 용기를 시험하'는 '이름얻기' 의식을 통해 인물들은 '맨 먼저 찌른 자', '소를 겁내는 자'와 같이 새롭게 정체성을 부여받는다.

[오답풀이] ② 자연 현상의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부족의 세계관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③ 임의로 부여받은 이름을 공고히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④ 집단과 차별되는 행위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⑤ 공동체에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호명될 이름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28.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을 이해한다.

'그'가 관찰한 '소'의 움직임을 서술한 것이지, '그'의 심리를 '소'에 투영하여 '소'의 움직임에 의도를 부여한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⑤ '동굴로 돌아'와 '준비해 둔 관솔가지에 불을 붙이'고 '바위 위로 올라'가는 행위가 연속적으로 제시되어 인물이 이 과정에 익숙해져 있음을 드러낸다.

29.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초점화된 인물인 '그'의 시선을 통해 '뱀눈'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건의 국면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빈번한 장면 전환이나 인물 간의 긴장감은 드러나지 않는다. ③ 갈등 해결의 실마리는 제시되지 않는다. ④ 사건의 인과 관계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며 예측의 결과를 이와 함께 제시하고 있지도 않다.

30.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그'가 '오한과 신열'을 의식하지 못한 채 그림에 몰두하는 것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들소를 포착하기 위해서이지, 공동체의 서열에 진입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소년들은 '훌륭한 식량원'과 '진정한 용사의 자격'을 얻고자 공동체의 요구 방식에 따라 수렵 대상인 들소를 포획하려 한다. ② '돌진해 오'는 들소에게 공포를 느끼는 것에서 주인공의 포획 시도가 실패할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주인공은 들소의 음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⑤ 중백은 사신으로 임명받아 현요와 떨어지게 될 상황이 되었으므로, 이는 두 사람의 애정 실현이 지연되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담당자'는 식품 사막 지역에 사는 주민의 영양 불균형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나)에서 '학생 3'은 이를 언급하며 '신선 식품을 넉넉히 실어 달라고 건의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학생 3'의 의견은 (다)에는 제

[언어와 매체]

35	②	*36*	⑤	*37*	④	*38*	③	*39*	①
40	④	*41*	②	*42*	⑤	*43*	④	*44*	③
45	③								

35. [출제의도] 문장의 중의성에 대해 이해한다.

지문에서는 문장 내에서 부사어가 무엇을 수식하는지에 따라 문장 구조가 다르게 분석될 때 문장의 중의성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부사어가 안은문장의 성분을 수식하는 것으로도, 안긴문장의 성분을 수식하는 것으로도 분석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겹문장에서 부사어와 관련하여 문장 구조가 여러 개로 분석될 수 있다는 것이지, 부사어의 수식 대상과 관련하여 문장 구조가 여러 개로 분석되는 문장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 문장이 겹문장인 것은 아니다.

36. [출제의도] 문장 구조에 따른 문장의 중의성을 탐구한다.

'검은 모자를 쓴'이 수식하는 대상은 '그'나 '그하고 그녀'로 분석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하고'는 '그'와 '그녀'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로 분석된다.

[오답풀이] ① 책을 준 주체가 '그'로 분석되면 '랑'은 접속 조사로, 책을 준 주체가 '그, 도희'로 분석되면 '랑'은 부사격 조사로 분석된다. ② '종일'이 수식하는 대상이 안긴문장의 성분으로 분석된다는 것은 '붐비는'을 수식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가게가 종일 손님들로 붐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③ '이 근처로 이사를 온'의 수식 대상이 '그와 그녀'로 분석되면 '만났다'의 주체는 '나'가 된다. 그러나 '이 근처로 이사를 온'의 수식 대상이 '그'로 분석될 경우, '와'가 접속 조사뿐 아니라 부사격 조사로도 분석될 수 있다. 부사격 조사로 분석되면 '만났다'의 주체는 '나, 그'가 된다. ④ '아침에'가 수식하는 대상이 안긴문장의 성분으로 분석된다는 것은 '떠났다'를 수식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그녀가 아침에 떠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오답풀이] ② ㉡에 해당하는 '지난날'만 사용되었다. ③ ㉡에 해당하는 '건널목'만 사용되었다. ④ ㉠에 해당하는 '먹고살다'의 활용형 '먹고살기'만 사용되었다. ⑤ ㉡에 해당하는 '쓴웃음'만 사용되었다.

40. [출제의도] 매체의 특성을 이해한다.

㉣에는 해당 채널의 지난 방송 영상들이 있는 다시 보기 목록이 제시되었다. 유사한 내용을 다룬 다른 채널의 영상 목록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오답풀이] ① 스마트폰에 쓰인 표준 기술과 관련된 자료가 진행자의 모습과 함께 화면에 제시되었다. ② 방송의 핵심 어구인 '표준 특허'와 '표준 기술'이 '#' 기호와 함께 화면 아래에 제시되었다. ③ 대화 참여 시 시청자들이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대화 예절을 준수해야 한다는 주의 사항이 실시간 대화창에 제시되었다. ⑤ 방송에 대해 시청자가 긍정적으로 반응한 결과가 숫자로 제시되었다.

41. [출제의도] 매체의 소통 양상을 이해한다.

'나무'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탐색하여 방송 내용과 관련된 추가적인 예로 텔레비전, 컴퓨터, 자동차를 제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구름'은 이모티콘을 사용하고 있지만 진행자의 의견에 공감을 표현하고 있지 않다. ③ '산들'은 다른 매체인 뉴스를 통해 표준 특허를 가진 기업이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과도하게 요구하여 문제가 되었다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지 않다. ④ '햇살'은 △△ 일보 기사 링크를 공유하고 있지만 다른 시청자가 진행자에게 요청한 정보를 대신 제공하고 있지 않다. ⑤ '바람'은 '햇살'을 호명하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 정보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지 않다.

42. [출제의도] 매체 언어의 특성을 파악한다.

'-고 있다'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거나 그 행동의 결과가 지속됨을 나타내는 보조 용

44. [출제의도] 매체 자료를 수용하는 태도를 이해한다.

㉢에서 '현우'는 시각 자료의 오류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동일한 형태의 두 그래프에서 도출할 수 있는 의미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래프의 형태는 동일하지만 A 구역만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오답풀이] ① ㉠에서 '지수'는 스마트팜 앱을 사용하면서 앱의 초기 설정값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던 자신의 태도를 언급하고 있다. ② ㉡에서 '지수'는 직접 A 구역을 확인함으로써 앱에서 제공한 정보만으로는 알 수 없는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구체화하고 있다. ④ ㉣에서 '은지'는 '현우'가 보낸 자료와 비교하여 자신이 인터넷에서 검색했던 정보가 정확한지 판단하고 있다. ⑤ ㉤에서 '지수'는 자신이 알고 있던 배경지식인 토양 내 비료 농도는 토양 내 물의 양과 관련 있다는 사실을 토대로 앱에서 B 구역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정보를 해석하고 있다.

45. [출제의도] 매체 자료의 변화 양상을 파악한다.

현재 A 구역의 경우 조명을 14시간 동안 켜 둠으로써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우'는 현재보다 4시간 적게 조명을 켜 둠으로써 적정 범위의 최댓값인 10시간으로 설정값을 조정하고자 한다.

[오답풀이] ① '은지'가 그래프의 형태를 바꾸는 목적은 목표 온도를 주기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목표 온도의 조정이 필요할 때 얼마나 조정해야 할지 알고자 함이다. ② 현재 A 구역의 경우 목표 온도를 25.0℃로 설정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연'은 상추가 생육하기에 적정한 온도 범위의 최솟값인 15.0℃로 설정값을 조정하고자 한다. ④ 토양 수분이 부족한 상황은 B 구역에서만 발생하였으므로, '민재'는 B 구역의 급수 주기가 현재의 절반이 되도록 설정값을 조정하고자 한다. ⑤ B 구역의 토양 내 비료 농도가 적정한 수준을 벗어난 이유는 토양 내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이므로 비료 공급량

의 설정값은 변경하지 않았다.